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75호

Thursday, September 4 2025 A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위해 많은 미국인 희생 기억돼야"
3인 비꼬며 "반미 음모, 안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외국 침략자를 상대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시진핑이 언급할지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미국인들의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전승절을 통해 승전의 역사를 자국 중심으로 왜곡하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는 과연 중국이 제2차대전 승전국인지에 대해 의

문을 표하고 있다.

중국은 9월 2일을 세계2차대전 전승일이라고 축하한다.

하지만 역사적 엄밀성에 충실한다면, 중국은 전승국일 수 없다. 제2차 대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중국의 전승국 주장은 허위일 수 있다.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중일전쟁은 독일의 서유럽 침공보다 앞선 1937년 시작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 베이징, 상하이, 우한, 광저우 등 주요지역과 해안지방까지 점령하고 양쯔강 따라 내륙 깊은 곳까지 침략했다. 마지막 남은 대도시 충칭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거쳐 충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국 동맹이 됐으며 1941년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과 전



쟁을 시작했다.

중국군은 전쟁 내내 중국 안에서만 싸웠으며 그나마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대만)가 한 일이다.

더구나 공산당은 전쟁 말미 국공합작을 통해 뒤늦게 뛰어들었다.

모택동의 공산당 정권은 후방지역에서 소규모 게릴라전만 했으며, 2차 대전 종료 후 내전을 통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본토를 장악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 중국 바깥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미국의 막대한 물자 지원에 힘입어 충칭을 지켜내고 1945년 해방 맞을 수 있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2차 대전 승전'이 아닌 '항일전쟁 승전'(Victory over Japan Day)으로 부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듯, 제2차 대전 아시아 전선의 '주적'이었던 일본을 "매우 적대적인 외국 침략자"라고 표현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면서도, 중국이 단순한 항일전쟁의 전승국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미국에 맞설 목적으로 모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매우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표현하는 등 시니컬한 반응으로 이들을 견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중 및 대러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치킨 게임'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율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고 있으나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곧 단철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원유 제재와 추가 관세 부과로 압박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MD 주지사 이탈리아 부적절 휴가 논란

웨스 무어 주지사 부부가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이탈리아에서 부적절한 휴가를 보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지사 부부는 민주당 후원자 조지 클루니 소유의 요트에서 상의를 벗은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말았다.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메일은 헤드라인을 통해 "무어 주지사가 이탈리아에서 조지 클루니의 호화 요트 위에서 반나체로 있었다. 그는 2028년 (대선) 야망에 차있는데, 그가 통치하는 '지옥 같은' 주에서는 범죄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클루니 부

부가 영화제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중이었으며, 무어 부부에게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는 호숫가 별장 이용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휴가 기간 동안 아무나 밀려 부지사를 임시로 주지사 권한 대행으로 지명하지 않았으나,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부지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비계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메릴랜드 도사가 범죄 위기에 빠졌는데, 이탈리아 요트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불티모어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내내 불티모어 범죄 상황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메릴랜드에 연방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

▶ 2면 'MD 주지사' 로 이어집니다

가짜뉴스...선 넘었다, 트럼프 사망설까지

AI 합성 '백악관 투척' 도 해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 사흘 동안 공개 일정을 갖지 않자, 난데없는 '사망설' 가짜뉴스가 유포돼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다.

공개적인 활동을 담은 영상 등이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지 않자 SNS에 건강 이상설에 이어 사망설까지 유포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의 한 골프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라운딩

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항공우주사령부 관련 기자회견에서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나는 지난 주말에도 바쁘게 일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이틀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더라"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하며 두문불출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 2면 '가짜 뉴스'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사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비엔나 버지니아주 상업용 건물 매매
\$670,000
메이플 애비뉴와
넛트리 스트리트 인근
최고의 교통과 유동인구!
총 1,192sqft
현재 임대 중(2026년 4월까지)
안정적인 수익 보장
넓은 주차 공간
장애인 주차 포함
투자나 직접 사용 모두 가능
콘도형 상가

덤프리스 버지니아주 상업용 건물 매매
\$975,000
미국 1번 국도
양방향 차선이 갈라지는 위치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
총 5,000sqft 중
약 4,000sqft 소로
다양한 용도 가능
주차 15대 가능
대지 약 0.31에이커
창고와 소로연비

상업용 부동산 매매
\$2,950,000
총 건물 10,044sqft
대지 2.35에이커
다목적 사용 가능:
연회장, 종교시설
레크리에이션 등
넓은 2층 구조
포장된 주차장 120대 가능
355번 도로 인근
게이더스버그와
저먼타운 사이 위치

워싱턴 D.C. 물류창고 매매
\$3,000,000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애비뉴 인근
14,600대/일 차량 통행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총 건물 7,182sqft
토지 0.33에이커
NNN 투자물건
연 임대수익 약 \$180,000
연 3% 임대료 인상
9년 이상 계약 잔여
(2034년 만료)
안정적 장기 임대수익 보장

프랭클린파크 버지니아 데이케어 시설 매매
\$3,640,000
총 건물 7,902sqft
대지 1.15에이커
프랭클린 팜 커뮤니티 내
장기 NNN 임대(안정 수익)
6개 교실, 3개 사무실,
주방, 현대식 놀이터 완비
투자 안정성 · 성장성 우수

리스버그 다운타운 상가 매매
\$650,000
크레센트 플레이스 커뮤니티 내
메인 스트리트 위치!
1층 상가 840sqft
높은 가시성과 유동인구 보장
레스토랑 · 상업 · 주거지
인근 W&OD 트레일 접근성 우수
투자 · 직접 사용 모두 적합

주책 구입후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책 빌더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한집 리얼티를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주책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 2025 시국 한인포럼

전미주 청년연합 주최
19일 델레스 힐튼호텔

미주 청년 연합(미청년)이 주최하는 대규모 미주한인포럼이 오는 19-20일 양일 간 워싱턴 델레스공항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전국 청년들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포럼은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진단과 대안’을 대주제로 이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행사 첫 날인 19일에는 한국에서 방문한 이희천 교수와 김성원 그라운드C 대표, 그리고 전한길 전 한국학 강사가 등장해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국에서 참여한 300여 명은 주강연 외에 소그룹별 모임을 열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 마련에



미주한인포럼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서게 된다.

20일 두 번째 날에는 워싱턴 DC를 찾아 나라를 살리는 구국 행진을 한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와 박주현 변호사와 황교안 전 새누리당 대표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에 나선다.

준비위원회는 3일 애난데일 한인타운 소재 중식당 ‘중미반점’에서 모임을 갖고 성공적 행사를 위한 사전 점검과 향후 준비해야 할 내용을 꼼꼼

히 챙겼다.

이 자리에서 손형식 필그림교회 원로목사는 “이번 포럼을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각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누하스’와 ‘엘리아’가 헤쳐나갔듯 등장해 나라를 구했다”면서 “우리도 비엘들이 되자”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코로나 백신 효과, 제약사가 입증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이의 코로나 백신효과 논란에 대해 제약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의 성공을 스스로 정당화해야 한다”면서 “백신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CDC가 이 문제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제약사가 그 답을 내놓

아야 한다는 것이다.

CDC는 최근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전 마너레즈 CDC 국장이 케네디 장관의 정책을 비과학적이라며 비판하자, 케네디 장관이 마너레즈 국장 등을 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을 지지했으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와 제약사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전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단기간에 백신 개발을 성공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이 CDC와 이 문제로 싸우기 보다는 제약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 1면 ‘MD 주지사’에서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큰 손인 클루니와 무어 주지사가 함께 했던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클루니는 작년까지 조 바이든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민주당의 여러 모금 행사를 주최하며 정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데일리 메일은 클루니가 무어 주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클루니는 지난 4월 CNN 인터뷰에서 무어 주지사를 “진정한 지도자”라며 칭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어 주지사는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부인했다.

김옥채 기자

▶ 1면 ‘가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창밖으로 어떤 물건이 투척되는 영상에 대해서도 “아마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창문은 모두 방탄용이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9월 4일(목) 86-64

5일(금)	89-69		8일(월)	75-52	
6일(토)	86-60		9일(화)	77-54	
7일(일)	74-55		10일(수)	77-5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 중앙일보 구독 및 광고 문의: 703-281-9660

NMLS #: 2425871

융자 가능한 주

* 버지니아

* 메릴랜드

* 워싱턴 DC

* 뉴저지

* 조지아

* 웨스트 버지니아

* 노스 캐롤라이나

* 사우스 캐롤라이나

* 델라웨어

* 알라바마

* 플로리다

* 테네시

* 미시간

* 캘리포니아

* 펜실베이니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ell@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트럼프 행정부, 집값 안정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수 주 내에 새로운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



사하고 싶은 잠재적 셀러들도 높은 모기지 이자율 탓에 망설이고 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기존에 4% 미만의 금리로 모기지를 얻었으나, 지금은 30년 고정 모기지가 6.5% 안팎이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모기지 금리도 급등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4.50%로, 모기지 금리와 직접 연동하지 않지만,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아 계속 상승해왔다.

베센트 장관은 “금리를 낮추면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를 1% 대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대배심 트럼프 협박범 기소 포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협박범 2명의 기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워싱턴DC 치안권을 2026년까지 되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니 페리스 피로 워싱턴DC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은 “DC의 대배심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협박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나탈리 로즈 존스(50세, 인디애나 라파예트)는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예고한 혐의로 지난 달 워싱턴DC에서 체포됐다.

피로 검사장은 “용의자는 암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개 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등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대배심이 기소를 포기했다”면서 “심지어

비밀경호국(SS)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대배심이 정치화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용의자 에드워드 알렉산더 데이나도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데이나는 경찰에게 대통령에 대한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마이클 하비 치안판사는 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을 비공개로 유지하라는 검찰 측 요청을 기각했다.

피로 검사장은 “이 사건 또한 대배심이 정치적 동기를 발휘해 무도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버지니아 주민 52% 식품값 상승에 ‘시름’

45% ‘이미 빚지고 있다’

49% 푸드스탬프 활용해

코로나 팬데믹과 관세 이후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버지니아 아동 결식 제로 캠페인(No Kid Hungry Virginia)이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민의 45%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가

정의 경우는 52%가 치솟는 식료품값으로 말미암아 빚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이 단체는 ‘체인지 리서치’에 의뢰해 버지니아 전역에 거주하는 성인 11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60%와 가족 75%는 식료품 구매와 연료비, 자동차 할부금, 육아비, 임대료 또는 주택 담보 대출금, 공과금 등 다른 필수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에서 버지니아 주민 10명 중 8명은 식품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

리 상승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소득이 연 4만7000달러에서 9만7000달러 사이의 가구 절반 이상(51%)이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참여자 중 절반(49%)의 가족이 식품 은행, 무료 학교 급식, SNAP 같은 식품 프로그램을 일년 내내 활용하고 있다. 응답자 중 공화당원 70%, 무소속 92%, 민주당원 96%는 어린이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한 기자



페닌슐라 지역 순회영사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13일(토) 버지니아 페닌슐라 지역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 페닌슐라 한인회관(13750 Warwick Blvd, Newport News, VA 23602)에서 진행된다. 처리가능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신고 등이다.

업무별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다. 여권 비용의 경우 10년 일반 여권은 50달러, 8세 미만은 35달러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Priority 우편 10.45달러)가 필요하다.

문의: 주미대사관 영사부(202-939-5653) 안내:페닌슐라 한인회(757-864-1803)

김윤미 기자

제22기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규모 축소

90~100여명 예상, 전체 인원 줄어

오는 11월1일 출범이 예정되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통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 평통위원 수도 21기의 4036명에서 800명 이상 줄어든 3200명 규모를 염두에 두고 추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협의회 위축도 21기 보다 10~20여 명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은 10일 마감되며 위촉 결과는 10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주 지역을 총괄하는 미주부의장과 각 지역 협의회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워싱턴협의회는 경우 L모, K모, P모 인사 등 다수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주 부의장에도 워싱턴 출신 인사 한 두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지역 협의회로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토론토, 애틀랜타, 마이애미, 시카고, 휴스턴, 댈러스, L.A, 오렌지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밴쿠버, 하와이, 브라질, 중미카리브, 남미서부 등 20개이다.

김성한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가정불화·우울증 등 온갖 추측만 난무

한인 치과의사가 가족 살해
지인들 “금전 문제 없어”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도
한인사회 충격에 휩싸여

애틀랜타 지역 50대 한인 치과의사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수사 당국은 가정사 문제(domestic-related murder-suicide)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존스 크릭 경찰국 측은 2일 “(사건 원인은) 가정사 문제로 보이며 외부 침입 등에 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4분 쯤 글렌 캐슬 코트 한 저택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3명은 제임스 최(한국명 최준철·52·사진), 명최(52) 부부, 딸 최모(15)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의 신변 확인 요청을 받고 해당 저택을 방문했었다”며 “살인 용의자는 남편인 최씨”라고 밝혔다.
경찰국 측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치과의사 제임스 최씨와 일가족이 숨진채 발견된 글렌 캐슬 코트의 저택.

[ANF 캡처]

를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크 미첼 경찰국장은 “비극적인 이번 사건은 남은 가족과 이웃, 우리 커뮤니티에 큰 슬픔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가족 사망 사건을 접한 지역 한인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최씨 부부는 스와니 지역에서 하이랜드 치과를 운영하면서 한인사회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앞장섰다고 한다.
남편 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애틀랜타에 이민 온 한인 1.5세로, 다른 가족들도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존스 크릭 경찰국에 따르면 최씨는 멤피스 지역 테네시대학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특히 미용 치과 및 임플란트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숨진 최씨 가족은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김형재·윤지아 기자

한국발 소액 소포에 80불 관세 부과

6개월간 정액제로 시행
면세 혜택 8월 29일 폐지
직구·수입업체 비용 상승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관세 면제 혜택이 지난달 29일 폐지되면서 한국에서 직접 구매(직구)를 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한국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소포 발송인과 수취인 중 누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마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EMS)과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 EMS 프리미엄’과 UPS·페덱스·DHL 같은 민간 특송뿐이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 일반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EMS 프리미엄은 우정사업본부와 UPS와 제휴해 운영하는 특송 서비스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UPS 글로벌 네트워크로 운송과 통관이 이뤄진다. 최대 70kg까지 발송할 수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소형 물품

은 오히려 비싸다. 관세는 미국 내 수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0달러 이하 우편물에 한해 건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상호관세율이 16% 미만이면 80달러, 16~25% 구간은 160달러, 25%를 초과하면 200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는 100달러 이하 선물은 면세가 유지되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이 정액 관세 제도는 EMS 등 국제우편망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강한길 기자

5세 딸 학대 한인 아빠 살인혐의 추가 가능성

지난 5월 위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5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비정한 한인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위싱턴주 킹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1일 5세 딸의 사인은 탈수와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된 아버지 한우진(29)씨의 재판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시소와 페더럴웨이 경찰국 측은 2일 본지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숨진 아이의 이름은 ‘한수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혐의만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시소가 공식적으로 한양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한양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9일 페더럴웨이 캠퍼스 드라이브 소재 글렌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씨는 911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이라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씨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나, 한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마와 뺨, 턱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있었다. 한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경준 기자

연방정부의 LA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

판결 효력은 거주만 한정
트럼프 “시카고에도 투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 나왔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



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구실로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며, 이는 민병대법의 근

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톱 본타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인 도시 군사화를 막아내며 이를 바로잡았다”고 적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케데헌’ 또 신기록, 넷플릭스 누적 시청수 1위

2억6600만 시청수… ‘오겜’도 제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와 TV 장르를 통틀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에 등극했다.
3일 넷플릭스 공식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2억6600만 시청수(시청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다. 역대 흥행 1위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1의 누적 시청수 2억6520만을 넘어선 수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주간 1위 자리도 유지 중이다. 지난주(8월 25~31일)까지 301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신작들을 제치고 정상을 지켰다. 한국·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국을 포함해 총 92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다.
OST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2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인 OST인 ‘골든’이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3주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1석5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5 in 1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N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USA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주택/비즈니스 용자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MDRT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트럼프 “시카고에 군 들어갈 것” 민주당 텃밭 노린다

“세계 최악 시카고, 가장 위험한 도시”
LA·워싱턴 이어 군 병력 투입 예고
연방지법선 “LA 군 투입은 위법”

범죄를 없애겠다며 로스앤젤레스(LA)와 수도 워싱턴DC에 군 병력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도 군 투입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LA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카고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다.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기만 미정일 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법 집행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방위군의 시카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주말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 시카고는 세계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며 군 병력 투입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시카고는 민주당 상징

성이 강한 곳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의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카고의 거리는 군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와 싸우거나 시카고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날 시카고 외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도 군 병력 투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과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안전지대”라 부르면서 “이곳을 본보기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연방 요원을 투입해 법 집행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한 방식을 시카고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결정을 두고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한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결정에 대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 법 집행 요원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구실로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는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의 현안여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을 12일까지 유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김형구 기자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폭격”

테러리스트 11명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 인근에 배치한 미 해군 자산으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의 운반선을 폭격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했다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나의 명령으로 미군들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식별된 트랜데아라과(TdA) 마약테러분자들에게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테러리스트들이 불법 마약을 실은 채 국제 수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던 중 이뤄졌다”며 “이 작전으로 테러리스트 1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TdA는 니콜라스 마두로(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테러단체”라며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 대량 살인,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및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 공습 영상. [연합뉴스]

이 미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미군의 폭격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언급을 피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마약 카르텔이 어디에 있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에는 어디서든 맞서 싸울 것”이라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약 30초 분량의 작전 영상도 공개했다. 열상감시장비로 촬영된 듯한 흑백 영상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쾌속정 위로 섬

광이 번쩍인 뒤 선박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NBC뉴스는 해당 선박에 실제로 11명이 탑승했는지, 마약이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의 진위성을 문제 삼았다. 프레이 나네스 정보통신부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며 “폭발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월 TdA를 비롯한 주요 마약 밀매 조직을 외국테러단체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으로 지칭하며 체포에 필요한 제보 보상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포함한 해군 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한 상태다. 이에 맞서 마두로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형제 기자

“여자 스트리퍼 달라”…골프장서 트럼프 쏘려던 범인 황당 요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황당한 요청이 담긴 동의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팜 비치 포스트는 3일 “라이언 라우스(59·사진)가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드, 파티 그림 제공, 스트리퍼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라우스는 트럼프와 “신체적 대결(싸움)이나 골프 대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을 들고 골프장 근처 덩굴 속에 잠복했으나,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발각됐다. 라우스는 요원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발포하지 못한 채 소총을 떨어뜨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주요 대통령 후보 암살 미수 외에도 연방 공무원 폭행, 총기 규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호팀 없이 자신이 직접 변호하고 있으며 법원에 낸 문서에 거친 용어를 썼다.
문서에서 라우스는 검찰이 재판 직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는 시도를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대신 자신이 트럼프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멧청한 놈(트럼프)을 데려온다면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적었다.
라우스의 형사 재판은 오는 9월 8일 플로리다 포트 피어스 연방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 인생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점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반미연대 맨앞줄...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서다

전승절 열병식, 66년만에 모인 3국 ‘불량국가 지도자’ 취급 받던 김정은 천안문 망루 올라 시진핑 왼쪽에 푸틴 다음 가는 수준의 의전 받아 외신 “시진핑, 김정은 필수 파트너로”

view 3일 오전 8시35분(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단면(端門) 앞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내외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옆에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맨 앞에서 이끌며 전승절 행사가 열리는 천안문으로 향했다. 냉전 시대 미국과 대결한 러시아와 포스트 냉전 시대에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그리고 고립된 불량 국가였던 북한이 이제는 ‘반미 연대’의 선두 그룹이라고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날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주최한 건 시진핑이지만, 망루 외교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66년 만으로, 김정은은 옛 혈맹 중국, 새 혈맹 러시아와 동등한 반열에서 망루에 섰다. 10년 전 70주년 전승절 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북한의 위상은 확연해진다. 당시 북한에서는 최용해 노동당 비서가 대표로 참석해 30명이 자리한 외빈석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진핑과 단독 면담도 하지 못한 채 행사 직후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단체사진 촬영 때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바로 옆에 섰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그자

리에 섰다. 천안문 망루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의 오른쪽 두 번째에, 김정은은 바로 왼쪽에 섰다. 오른쪽이 외교 관례상 상석이지만, 시진핑과의 거리는 김정은이 더 가까웠다.

시진핑의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 푸틴이 선 모습은 이들이 곧 반미 연대의 구심점이라는 은유나 마찬가지로 보였다. 천안문 망루에 등장할 때도 시진핑을 뒤따라 푸틴과 김정은이 차례로 입장하는 등 중국 측은 김정은에게 푸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단면 도착도 푸틴을 마지막, 김정은을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배치해 주목도를 높였다. 평리위안은 김정은과 악수하며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

미 CNN 방송은 “김정은은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섰다. 시진핑은 서방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이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사실 최근 중국은 북·러와 하나의 세력으로 묶이는 걸 오히려 경계해 왔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뒤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동맹 관계를 구축하자 거리를 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북·중·러 간 ‘신(新)북방동맹’의 부활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열병식 시작 직후 올린 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시진핑을 향해 “반미를 모의하고 있다”며

푸틴과 김정은도 지칭했다. 불과 지난 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김정은과 올해 만나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사실상 셋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김정은으로서는 양손에 ‘꽃놀이패’를 쥔 격이 됐다. 러시아에는 파병을 지렛대로 전략 무기 기술 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안보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더라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일 뿔 수 있다.

김정은은 이날 푸틴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했다. 리셉션 오찬 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세 사람이 함께 푸틴의 의전 차량인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을 타고 회담장인 조어대로 이동했다.

회담에서 푸틴은 “특별한 신뢰와 우정, 동맹적 성격”을 언급하며 파병에 사의를 표했고, 김정은은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며, 이는 형제의 의무”라고 화답했다. 회담 뒤 김정은을 배웅하며 푸틴은 방려를 다시 초청했다.

다자외교 데뷔전인 이날 김정은은 검은 양복에 금빛 넥타이를 매고 참석,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중국으로 전용 열차를 타고 출발할 때는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으나, 이튿날 오후 베이징 역에 도착할 때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 적색 넥타이로 옷차림을 바꿨다. 통상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공식 복장은 인민복이다.



정상들 선두서 걷는 3인 3일 중국의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참관을 위해 26개국 정상들이 베이징의 천안문 망루로 이동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이 맨 앞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59년 10월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한국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신화=연합뉴스]

김정은은 천안문에 오르면서 시진핑, 푸틴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시진핑이 연설할 때는 흰 손수건을 꺼내 코와 얼굴의 땀을 닦거나 나무 소재의 부채를 꺼내 연신 부채질을 하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도 보였다. 중국이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

61(동풍-61)이 지나갈 때는 시진핑에게 질문을 하는 듯 말을 걸기도 했다. 김정은은 다른 나라 정상과도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텔레그램 계정을 인용해 김정은이 그의 방북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12세 김주애 국제무대 첫 등판... 천안문 망루엔 오르지 않은 듯

백두혈통 최연소로 외교활동 개시 일각 “김정은 독재 이미지 희석 도구”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면서 딸 주애도 국제무대에 등판했다. 주애는 2013년생으로, 열두 살에 외교 활동을 개시한 건 김씨 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 중 최연소다. 다만 김정은은 예상과 달리 3일 오전 전승절(戰勝節·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 참관을 위한 천안문 망루에는 주애를 대동

하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 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중국이 불쾌해하거나 김정은으로서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주애가 26개국 정상에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까지 감당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방중으로 주애가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낙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정

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역시 후계자의 중국 방문 동행을 후계 구도 구체화의 기회로 삼아 왔다.

다만 아직 41세로 젊은 김정은이 딸을 조기에 내세운 건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외적 공식화가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여기엔 김정은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생모는 북송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인 고용희로, 김정일의 정실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재일교포 출신에 셋째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정은은 아버지와 떨어져 ‘은둔의 유년기’를 보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백두혈통’임에도 정통성에 끊임없는 의구심을 받아 온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뒤 약 7년 지난 2018년에야 시진핑을 만났다. 북·중 관

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 등으로 눈 밖에 나면서 중국의 ‘축북’ 자체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 외교적인 고립을 겪은 것도 주애의 동행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정은이 다자외교 무대 데뷔 과정에서 주애를 소도구로 활용한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린 자녀를 챙기는 모습을 통해 잔혹한 독재자 이미지를 희석하고 보다 극적인 주목 효과를 연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영고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 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서비스를 못마음 원문 센터(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천이름(H-mart)과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Licensed by ICONIX Co., Ltd.,
© ICONIX / OCON / EBS / SK broadband

LOTTE^{PLAZA}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SEP. 4th-SEP. 11th, 2025

Pororo
The Little Penguin
PREMIUM
BATH TISSUE

219 | 24
SHEETS PER ROLL ROLLS

24⁹⁹

15⁹⁹
PK

Only at

LOTTE^{PLAZA}market

보로로 프리미엄 화장지 24롤

 **MADE IN KOREA**

면접종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해 따라 조가물정 또는 수량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9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otomac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F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mont Plaza
Ashburn, VA 20147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Edison, NJ
1199 Ambury Ave.
Edison, NJ 08837

Tampa, FL
11605 Bruce B Downs Blvd.
Tampa, FL 33647

Orlando, FL
3191 West Colonial Dr.
Orlando, FL 32806



3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왼쪽부터).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트럼프 겨냥 “약육강식 밀림으로 돌아가선 안 돼”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자리
미국 상호관세를 ‘밀림’에 비유한 듯
“인류,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 직면”
대만 겨냥해 “일류 군대로 중국 통일”**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류는 다시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에 직면했다”며 이분법을 펼쳤다.

이날 전승절(戰勝節·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기념연설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과 약소국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면서다.

천안문 망루에 올라 약 6분간 950여 명의 관중 앞에서 시 주석은 “인류

는 다시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인류 문명의 진보의 편에서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80년 전의 제2차 세계대전을 회고하면서는 “정의와 악, 빛과 어둠, 진보와 반동의 생사를 가르는 결투에 직면한 중국은 적과 맞서 싸웠다”고 했다.

이를 놓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사회를 전쟁 주도 세력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도국)를 평화 세력으로 미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은 닷새 동안 글로벌 사우스 위주의 23개국

정상과 마라톤 회담을 소화했다.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以農村包圍城市)”는 마오쩌둥식 전술을 계승한 듯한 모습이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의 군사력 굴기를 강조했다.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주권·통일·영토완정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다. 통일을 강조한 것을 놓고는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마무리로 달랐다. 2015년 정안·평화·인민 필승을 외쳤던 70주년 연설과는 달리 “인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쳤다. 천안문 망루에 걸린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와 같은 메시지다.

시 주석은 오찬 연설에서도 미국에 각을 세웠다. 그는 “일시적인 강약은 힘에 달렸지만 역사의 승부는 이치에 있다”며 “정의·광명·진보는 반드시 악과 어둠, 반동을 물리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코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밀림의 법칙’에 비유한 대목이다. 중국 사회 내부의 단결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에 불참한 장쩌민·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예우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고수해야 한다”며 전임 지도자의 지도 이념을 재확인했다. 그

리면서 “역사는 과거를 견디며 미래를 깨우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세계 정세의 위태로움과 국가 간 평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안보와 통상에서 일방주의 공세를 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중국은 평등·화목·상조의 기조로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평화와 수호에 공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열병식은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최고지도자와 이란 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여 ‘반(反)서방’ ‘반미’ 연대를 연출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트럼프, 시진핑·푸틴·김정은 비꼬며 “반미 음모, 안부 전한다”

**트럼프, 북·중·러에 비난 메시지
연대 걱정 없다더니 불편함 표출
“중국 승리 위해 많은 미국인 죽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나란히 세운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을 향해 “반미 음모”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자유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시 주석의 중국이 답변할지가 중대한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 다. 북·러 정상엔 “당신들은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시 주석을 향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

핑 때만 해도 ‘북·중·러의 밀착을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3국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직후 ‘음모’라는 단어로 비난 메시지를 보냈다. 세 나라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며 외교적 해결을 호언장담해 왔던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스트롱맨 친구

들과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났다”고 평가했다. 북·중·러 정상의 만남을 두곤 “역사적 장면이다. 서방의 오랜 지배에 맞선 대안 질서를 공유하는 세 독재자 간 단결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을 두고 “고립된 외톨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는 이정표”라고 전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한지혜 기자

베이징, 코로나 때처럼 이동 통제

**전승절 열병식 행사 이모저모
무장경찰·공안 등 시내 종일 통제
우원식, 행사장서 김정은과 악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를 전후로 베이징은 명실상부 계엄 상태가

됐다. 지난 2일 밤 중앙일보 베이징총국 출입문에는 ‘보안 봉쇄’ 테이프가 붙었다. 3일 새벽 베이징 주요 로터리에선 정복 차림의 무장경찰, 제복 차림의 공안, 사복경찰과 차오양 군중(시민 감시자)까지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펼쳤다. 2020~2022년 사람들의 이

동을 통제하던 ‘제로 코로나’ 시기로 돌아간 듯했다. 당국의 통제는 열병식 종료 후 2시간이 지나서야 풀렸다.

이날은 10년 전 열병식과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 곁에 ‘전임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없었다. 2015년 열병식에선 시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오른쪽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엔 후 전 주석 자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차지했다. CNN은 “시 주석 집권 후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 없이 열병식을 치르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생존한 전직 국가주석은 후 전 주석 뿐이다. 전직 지도부 중에선 원자바오 전 총리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최근 시 주석과 갈등설이 있던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옆자리에 앉았다.

반면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서열 3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 주석의 군장악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새 인물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 사열 시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엔 중장”이라며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신경진·이도성 특파원, 서유진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손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2. 캔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3. 더로링메트로얏 콘도 \$460,000 방 1, 화 1, 1/2 층 오픈 loft 1 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여의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라스, 수영장,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5. 애난데일 싱글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화 3, 카포치, 세지롱, 드라이브웨이 4대주차, 화실, 2,312sqft, 0.46acre, SOLD AS IS, 용지사제 보다 3만달러 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395/136/409/95/66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 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밀라스 공항 Coming Soon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10. 센터빌 벽돌타운 \$589,000 방 3, 화 2.5, 차고 1, Hmart인근, 29/Braddock/28,66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3. 렌트 애쉬번타운 \$3,300 전체마루, 2 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워,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 옆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드래즈루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에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	---	---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09/09~09/19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대강양박 \$3590+항공
09/16~09/26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양박 \$2990+항공
09/24~10/04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2990+항공
09/30~10/13 13박 14일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9/30~10/06 6박 7일	정통 동유럽 \$27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마강양박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풍격 고국일주 4차 마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20~10/28	튀르키예 일주
8박 9일	\$1990+항공
10/21~10/31	고풍격 고국일주 5차 마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고풍격 고국일주 6차 마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290+항공

2026

01/21~02/03	신비의 인도&네팔
13박 14일	\$4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5박 16일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3190+항공
02/02~02/06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3/31~04/10	고품질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04/21~05/01	고품질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04/29~05/05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05/04~05/12	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35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10박 11일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6/02~06/10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6	고품질 고국일주 3차(영&한)
10박 11일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6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5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소규모 맞춤형 여행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 +항공

탐여행사는 소규모의 단체여행을 모국, 유럽 등 전세계를
요구하시는 대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친한 그룹끼리 **골프 또는 여행**을, 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손자·손녀들만의 **3세대 투어**를 전문적
으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32년 전통 **탐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탐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마감임박

3박4일 | 9/27~9/30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 동경 마감임박

3박4일 | 10/25~10/28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코루즈 마감임박

11박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발코니·요금문의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김포/제주

5박6일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최고의 단풍 시즌 관광

6차 **10/28~11/07+동경&오사카**

5박6일 | 11/8~11/13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오션뷰

소노캄 여수
일반부와 \$170차이



오션뷰

소노캄 거제
일반부와 \$170차이



오션뷰

그랜드 조션 부산
일반부와 \$180차이

일본 연립 투어

동경 일출발

3박4일 | \$1149+항공

오사카 화출발

3박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화출발

5박6일 | \$1899+항공

단풍특선

동경&오사카 화출발

11/01~11/06
11/08~11/13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2인 이상
출발보장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접 운영	내륙 6박 7일 일출발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서남권 3박 4일 일출발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동해안 4박 5일 화출발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도 2박 3일 일출발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일출발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일출발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방콕/파타야 각주 3박 5일 \$490+항공	다낭 각주 3박 5일 \$450+항공	대만 각주 3박 4일 \$6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각주 3박 5일 \$690+항공	나트랑/달랏 각주 3박 5일 \$450+항공	싱가폴 각주 3박 5일 \$850+항공

경인 단풍특선 > 지난해 조기 마감됨 인기 일정! 이번엔 늦게 전에 서둘러 예약하세요.

캠버랜드 기차여행
 10/18(토), 22(수), 25(토)
 10/27(월), 30(목)
 11/1(토) **\$179**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현대아산병원 / 경희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성금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199

9/9, 9/30, 10/16, 10/29, 11/13, 12/4

뉴욕/투어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가능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레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원 무조건 환불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2박 3일
\$650

원 무조건 환불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원 무조건 환불

뉴욕

탐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1박 2일
\$399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원 무조건 환불

뉴욕/투어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가능

미서부

탐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차간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원 무조건 환불

미서부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원 무조건 환불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엘로르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원 무조건 환불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킹턴 출발 요일이며, 모든 패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재차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공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 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秋鬪·가을 투쟁)

노조, 릴레이 추투 본격화

하청까지 쟁의, 요구조건도 달라져
HD현대, 계열사 합병 반발 동맹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 요구도
경영계 “정부,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현대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임금·상여금 인상 외에 정년 연장(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친(親)노동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재계는 대기업 노조의 하투(夏鬪)가 한층 거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올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하청 노조까지 쟁의가 번지는 모양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노조 쟁의가 하투를 넘어 추투(秋鬪)로 깊어지고 있다. 노사의 입장 차가 큰 데다 노조가 추석을 앞둔 가을까지 압박을 이어가며 협상력을 높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출범, 특히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노조 쟁의의 주제와 내용, 강도가 모두 강성으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추투 주체부터 하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하청) 노조

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는 물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했다.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청이 원청을 대상으로 고소한 첫 사례다. 네이버에선 본사 노조와 손자회사 6곳 노조가 연합해 “모기업 네이버가 임금·복지·인력 운영 등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투 내용도 달라졌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뿐 아니라 현 정부 공약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현대차뿐 아니라 포스코·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노조도 정년 연장을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는 계열사 간 합병에 반발해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맹 부분파업 중이다. HD현대 관계자는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제 클러스터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집회 장소로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를 택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일 울산공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추투 강도도 한층 세졌다. 노조의 과거 불법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5건)마저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200억원 규모의 노조 손해 판결 문제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 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

리에서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 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전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접근을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

했다.

기업 ‘육죄기’만 보이고 기업 ‘기 살리기’는 보이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실천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천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환 기자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국회 주도)

‘친노동정부서 입법참여’ 판단한 듯
이 대통령, 오늘 양대 노총과 오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은 26년 만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3일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투

표자 261명 중 142명의 찬성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2·9 사회협약’에 참여했지만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했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근로제 확대 등

이 사회적 합의란 명분 아래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2005년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

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발표 15분 전에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복귀 무대로 정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대화 기구다. 민주노총이 국회판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건 ‘친노동’ 정부에서 노동계가 그간 요구해온 각종 입법에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세종=김연주 기자

기재부, 재정부·예산처로 쪼개기 가닥

과기부장관, 부총리급으로 격상
사회부총리 자리는 없애기로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둘로 쪼개지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여당과 정부가 기초적인 협의를 거친 유력안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지 17

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분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로 명칭을 바꾼다. 금융감독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격상하는

조직이다.

다만 금감원 분리의 경우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개편 관련 질의에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준호·강보현·조수빈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지금 재정 아슬아슬… 국가채무비율 40년 뒤 3배 폭증

최악 땐 GDP 대비 173% 치솟아
고령층 2배, 생산연령 인구 반토막
의무지출 15% 절감해도 105%

한국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수과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조기 경보음’이 울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로 5년마다 발간한다. 기재부는 인구와 성장률을 변수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구와 성장률을 중간값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비(非)기축통화국의 재정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60%의 2.6배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에 나랏빚이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인구 추세는 현재와 같지만(인구 중위) 성장률이 악화(2055~2065년 0% 성장)되는 가장 비관적인 ‘성장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채무비율이 173.4%까지 치솟는다. 성장률이 개선되는 가장 낙관적인 ‘성장 대응(2055~2065년 0.8% 성장)’ 시나리오에서도 133%에 이른다. 대신 정부가 재량지출을 최대 15% 줄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138%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무지출을 15% 절감한다면 2065년 채무비율은 105.4%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작업은 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65년 채무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선다. 대다수 사회보험이 앞으로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보험료율을 8%까지 올린 뒤 동결한다는 가정하에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상된다. 사학연금에는 2026년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적자 전환은 3년,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에는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제시된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 예상치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연금개혁법안이 반

영된 결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채비율이 133%든 173%든, 한국 경제 규모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지고, 결국 강제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서야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전망은 직전인 ‘제2차(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과 차이가 크다. 5년 전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전망치를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제3차 전망에서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현재와 같이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세종=김연주·장원석 기자

오세훈 대선 뒤 국회 첫 방문 “민주당은 폭주기관차, 전복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11일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지 176일 만으로, 6·3 대선 뒤 처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여당의 과유불급 행태에 많은 국민이 깊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내란특검에 오 시장 등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보기에 딱하다.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한 것이고, 수도권 단체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사심을 감춘 입장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강성으로 평가받는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시점에 이뤄진 오 시장의 국회 방문은 정치권 이목을 끌었지만, 국



김혜경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 2025’ 행사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민회의 의원들이 특검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하면서 당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에 대해 “공세가 극심한 상황에 중심을 잡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가 있다”며 “지도부 인선을 보니 안심이 된다. 고심 끝에 인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선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합심해 무도한 폭주 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9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효율적인 견제는 개혁신당과의 협력”이라면서다.

양수민 기자

“금리인하 대상자입니다” 이젠 은행이 알아서 낮춰준다

개인정보 입력 땀 신청 없이도 통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은행이 알아서 인하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그간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서민 금융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기준도 비공개라 누가 금리 인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

나·우리·NH농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58만6050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사례는 15만3523건에 불과하다. 승인 비율로 보면 26.1%인데, 10번을 신청하면 2~3건 정도만 금리 인하를 받았다는 의미다.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비율도 높지 않다 보니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과 금융당국이 준비하는 새로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 네이버·카카오·토스 같은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본적인 신용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금리 인하 대상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하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금리를 자동으로 깎아주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없이 개인 정보만 미리 입력해 두면 금리 인하 여부가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하다. 또 그간 은행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금리 인하 조건들도 일부 소비자에게 공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

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럴 경우 어떤 점을 보완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포함된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먼저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으로 확대하면 이들 대출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김남준 기자

대표변호사 **임 종 범**
James Yim Victory, Esq.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 진 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www.hyebanmd.com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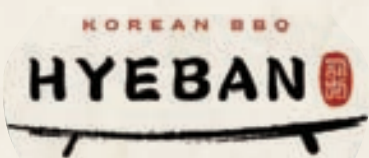


7월 25일 (금)부터
“All Day Buffet” 개시!
(Buffet 또는 Buffet + BBQ 를 선택)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에… 피자집 흥기난동 3명 사망

관악구서 하자보수 비용 놓고 다툼
본사 임원·부녀 인테리어 업자 숨져
40대 피자집 점주 범행 뒤 자해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피자가게 40대 점주가 벌인 칼부림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조원동 한 피자집에서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서 흥기에 찔린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흥기 살인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졌다. 이날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숨진 피해자는 40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아버지와 30대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자는 해당 피자가게 주인 A씨로 흥기로 범행을 저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 3명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보수와 관련해 이날 가게를 방문했

다가 비용 부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의 가족은 중앙일보와 만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너무 비싸서 힘든데 본사에선 (가맹점 수익 등을) 너무 받아가는 등 사건 전부터 본사 갑질이 너무 심했다”며 “최근엔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라고 강요했는데 인간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 A가 고통스러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최근 가게에 누수 때문에 물이 찼고, 타일이 다 깨져서 냉장고가 주저앉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상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A씨 가족은 또 “A는 그동안 사업에 몇 번 실패하고 이번 가게(피자집)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

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업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본사에서 강제하지 않았다. 두세 곳 견적을 받아 추천했고 점주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며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 간 유·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점주 요청으로 중재하러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인 세트 메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배달이 아니면 판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가를 올리는 메뉴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생존을 위해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는 건 본사의 당연한 의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윤·이영근·김창용 기자

“계엄날 선관위 30명 확보 지시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이 당시 상부로부터 3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정보사 소속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김씨는 12월 3일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확보할 인원이 있다’며 30명 이상 인원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인원 확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당시 다른 출동조로부터 “확보한 인원을 김 대령이 면담한 뒤(수방사) B1 병커로 이동할 계획이 있

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지시받을 때 선관위 인원들을 ‘체포’하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묻,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상황으로선 체포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은 이날 출입 통제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권력기관 전체에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전 기획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에 따라 인사명령을 검토했다며, “국방부 일반명령에 ‘합동수사본부에 제2수사단을 신설하고, 김봉규 전 대령을 여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 외에도,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증거조사를 마친 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수감된 윤에 휴대폰 건넨 의혹 법무부, 강의구 고발·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를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 전 실장은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인 접견 및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강 전 실장이 지난 2월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을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구치소는 강 전 실장을 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 명절 등 휴일이



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정 장관 지시로 7월 말 교정본부에 접견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관련 8월 한 달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된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 기간(53일)을 대상으로 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KTX 탔는데 옆사람 불편, 이젠 ‘셀프’로 자리 바꿀 수 있다

하반기 공공기관 서비스 33건 개선
공항 출국장 혼잡도 실시간 제공도

올해 하반기부터 기차를 타고 나서 주변에 불편감을 주는 다른 승객이 있으면 ‘코레일톡’ 앱을 통해 좌석을 바꿀 수 있다. 네이버 등을 통해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험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포함된 33개의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열차 탑승 후 코레일 앱을 통한 ‘셀프’ 좌석 변경이 가

능해진다. 기존에는 출발 후 좌석 변경 등은 앱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열차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 공항 출국장 혼잡 정보가 네이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예상 대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항에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이 많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서는 내일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속도로 휴게소 100개에 우선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편의점에서도 수납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에서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12개 국립공원 내 명소 중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된 17곳이 대상이다. 탐방 버스는 장애인·노

약자·영유아·고령자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피크닉존)도 현재 1개소(월악산)에서 10개소로 늘린다.

러닝인구를 위해 한강·금강 등에 있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가능한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올해 10월까지 10km 내외의 스타터 코스가 시범 운영된다.

세종=안효성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녹조 뒤덮인 미 이리호에 가다

악취·독소 내뿜는 조류 사체 동동
주민 “녹조 대발생 뒤 폐질환 악화”
수질 개선에 3조 들여도 효과 없어
“과학적 규명 위해 장기 연구 필요”

지난달 13일 미국 오하이오주(州) 텔리도시. 이리호 서편엔 띄어별 아래 녹색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유해 남조류(남세균)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창궐하면서 호수색이 변한 거다. 물 가까이엔 검은색 덩어리가 물결을 따라 움직였다. ‘팅비아’라는 남조류 사체였다. 부패하면 악취를 풍기고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동물 폐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한다.

이리호에서 평생 배를 몰았다는 켄 사빈(75)은 쉼 목소리로 “어릴 때 폐렴을 앓고 회복한 뒤 문제없이 살았는데 2014년 녹조 대발생 이후 폐 질환이 다시 악화됐다. 지금도 집에서 호흡기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 4분의 1 면적인 이리호(2만6720㎢)의 서쪽엔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한다. 수심이 얕은 데다 하천을 통해 농장·도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2014년엔 수돗물에서 녹조로 인해 생성된 독소가 나와, 주민 50만 명이 한동안 수돗물을 쓰지 못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유해 조류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졌다. 연구자들은



지구관측위성 랜드셋 9호가 지난해 8월 13일에 포착한 미국 이리호의 녹조 대발생 모습. 녹조 면적이 830㎢에 달했다.

[사진 NASA]

“유해 조류가 기후 변화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엔 열대 지역에 주로 번성하던 링비아에 이어 개화 기간이 더 긴 돌리코스포룸도 나타난다.

이리호를 포함한 오대호 일대에서선 2010년대 녹조 대발생 이후 ‘오하이호-

이리호 천식 벨트’라 불릴 정도로 천식 발병률이 높아졌다. 데이비드 케네디 텔리도대 의학 교수는 천식 질환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조류 독소에 노출됐을 때 폐 염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인체 위해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해 조류 번성(HABs)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세다. 미국에선 HABs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22억 달러(3조657억원)에 이른다. 수질 관리와 정수 비용, 보건 예산, 수산물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정부는 하수 처리, 식수 개선



을 위해 2011년부터 총 23억 달러(3조 1000억원)를 썼다. 농업에서 유발된 유입물질을 줄이기 위해 1억 달러(1350억원)도 지원했다.

하지만 아직 녹조 감소에는 큰 성과가 없다.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연구에 3700만 달러(약 500억원) 이상 지출했다.

조류 독소와 알츠하이머와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이지역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 교수는 “인체 위해성은 공기를 통한 흡입, 독소가 축적된 수산물·농작물 섭취, 녹조 노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파악할 수 있다”며 “과학적 규명을 위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리도=정은혜 기자

‘녹조 청정구역’ 한강·영산강도 긴장…올여름 조류경보 최다

발령일수 412일, 작년의 1.4배 수준
영산강 주암호엔 14년 만에 내려져
“폭우·폭염 세진 탓, 종합대책 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녹조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올해 환경부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를 분석한 결

과, 8월 말까지 4대강 29개 지점(상수원 28곳·친수구역 1곳)에서 총 412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의 1.4배 수준이다. 조류경보제가 확대 시행된 2020년 이후로는 최다 기록이다. 녹조 청정지대로 여겨졌던 한강(14일)과 영산강(15일)에서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광주·전남 식

수원인 영산강 주암호에 조류경보가 내려진 건 14년 만이다.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 역시 녹조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강 서울 관통 구역(성수~마포대교)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녹조를 만드는 유해 남조류 농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폭우와

폭염의 강도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통 장맛비는 녹조 발생을 억제하지만, 폭우는 ‘녹조 먹이’인 영양염류(인·질소)를 강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자연 오하이오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최근 10년 사이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총인(T-P)도 증

가 양상을 보였다”며 “특히 한강에서 인 농도가 강수량에 의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녹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역별로 인과 질소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권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당은 ‘피해호소인’ 표현,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에 대한 원 후보자 입장이 소극적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난달 13일 지명된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

전문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하다.

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장관이 되면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 폐지 논의 속에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됐다. 확대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핵심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의원들은 성평등 등과 관

련한 정치적 이슈 질의에 집중했다. 원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걸 두고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규범에 들어간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할 의향이 있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장관이) 눈치를 보는데 힘 있는 부처가 가능하겠나”라며 꼬집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유죄 판결 후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면서 논

란이 된 윤미향 전 의원 관련 질문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윤 전 의원처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면에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대통령) 헌법적 권한에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달희 의원은 “(서면답변에서) 유죄 판결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에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국무위원 역할을 다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데엔 유감을 표했다.

서범수 의원은 “위원 3인 만장일치 기각에 대한 반성은 없나”라면서 “(후보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박 대령)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 “박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약 챙겨드리기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식사 도와드리기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말 동무 해드리기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우리말 바꾸기

3인방에 대한 고찰

기부천사들의 조용한 선행은 큰 울림을 준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두고 “온정을 선사한 3인방”과 같이 표현해도 될까?

3인방에 쓰인 ‘방’이 어디서 온 말인지 알아야 한다. 사전엔 4인방이 올라 있다. ‘4인방’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 권력을 휘둘렀던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과 그 무리 4명을 이르는 말이다. ‘상하이방’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장쩌민의 후원에 힘입어 1980년대 권력의 실세로 군림했던 상하이 출신들을 가리킨다. 2000년 이후 등장한 국무원 석유부·석유학원 출신의 인맥을 일컫는 ‘석유방’도 빼놓을 수 없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방’과 ‘홍방’이 있다. 이들 조직은 상호 보조를 위해 만들어진 비밀결사대였으나 훗날 범죄단체로 변질돼 중국 압חק가의 대명사가 됐다. 중국에서 ‘방(幫)’은 이익을 위해 이룬 무리, 파벌, 패거리 등 부정적 색채가 강한 의미로 사용돼 왔다.

이런 쓰임에 비추어 보면 ‘기부천사 3인방’ ‘신인상 후보 5인방’처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감이 있다.

‘문고리 3인방’ ‘비리 핵심 인물 5인방’ 등의 쓰임새가 더 자연스럽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말을 우리나라에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전기차 지금이 구매 적기인가



박낙희
경제부 장관

나타 8만8070달러를 제쳤다.

비교 모델 중 MSRP가 가장 저렴한 쏘나타는 3년/3만6000마일 오일 교환 등 무상 정비가 제공되며 보험료와 감가상각이 상대적으로 낮아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이들에게 실속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2년/2만5000마일 오일 교환이 제공되는 캠리 하이브리드도 캘린당 50마일 연비로 연료비가 저렴하고 감가상각도 쏘나타보다 낮아 장기 운용 시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결과는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를 테슬라 모델3에 적용해 다시 계산하면 달라진다. 3년간 총 소유비용은 모델3가 여전히 4만6453달러로 쏘나타나 캠리보다 2000달러 전후 높지만 5년 기준으로 하면 5만5895달러로 쏘나타보다 1500달러 가까이 낮아졌다. 10년 누적 비용에서는 8만200달러로 캠리, 쏘나타보다 4500달러에서 8000달러가량 저렴해져 3개 모델 중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차가 된다.

올이 높은 차가 된다.

이달 안에 모델3를 구매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정하기 전 한가지 간과해선 안 되는 조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유지비와 연료비 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졌지만, 높은 초기 차량 가격과 감가상각률,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고려하면 총 소유비용은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3의 5년 감가상각은 신차 가격의 50%에 달하는 1만9995달러로 쏘나타(45%, 1만1993달러) 캠리(38%, 1만792달러)보다 훨씬 높아 이를 반영하면 총 소유비용이 최대 1만6400여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는 단순히 수치로만 결정할 수 없다.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탈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누군가에겐 개솔린차가, 또 다른 이에게는 전기차가 정답일 수 있다.

지난달부터 업체들이 무이자 할부에 캐시백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전기차 판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구매 또는 리스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인 만큼 전기차 구매가 유리한 경우라면 서둘러 발품을 팔아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다.

발언대

성공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손현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이나 ‘경제적인 지위’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국의 ‘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낮은 부부의 이혼 확률이 연소득이 높은 부부의 이혼율에 비해 30% 이상 높다고 한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이혼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시쳇말로 남자들은 돈만 잘 벌면 웬만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연구에서 ‘아내의 소득’이 높다고 이혼율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아내가 결혼 후 장시간 고용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의 위험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최근에 어떤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 거

액을 뜯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만일 이 선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미 매장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하기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커다란 잘못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부인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 주지 않던가.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용서받았던, 고국의 대통령 부부는 이제 권력을 잃고 감옥에 갇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일 잣대에 과도하게 관대하다. 외모, 권력, 돈, 지위 모두 한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 관계의 지속성과 도덕적 평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관계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 가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남자 인간’들을 평가할 때,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규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국 한방병원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남북 정상 분단 55년 만의 포옹... 끝내 못 넘은 북핵

북한, 장마당 설치 등 변화의 바람
‘남한이 우리 도와준다’ 인식 확산

긴장 완화에 한국 신용등급 상승
남북 연간 교역 10억 달러 넘기도

남북이 갈라진 지 55년 만이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다. 김 대통령은 공항에 마중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했다. 분단 후 남북 정상 1차 만남이었다. 증오와 대결로 점철되다시피 한 역사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려는 길이었다.

김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떠나기 전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 생각은 2박3일 평양 일정의 마지막 날 나온 공동선언에 그대로 담겼다.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는 그저 말뿐인 선언이 아니었다. 이후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대강(大綱)이었다. 정상회담 뒤 개성에 한국 기업이 운영 하는 공단이 들어섰고, 2005년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2015년까지 11년간 남북 교역액은 매년 10억 달러를 웃돌았다. 남북을 오간 인원이 연간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긴장 완화 분위기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02년 3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올렸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였다. 한반도에 깃들기 시작한 평화의 힘이었다.

정상회담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김 주석이 회담 17일 전에 사망하면서 무산됐다. 90년대 후반 들어 남북 정상은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여기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성 말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나 경제·외교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적극 나설 우방이 없었다. 옛소련이 해체된 것을 비롯해 사회주의 정권들은 줄줄이 몰락했고, 중국도 수교 후 남한과 밀착했다. 돌파구는 같은 민족, 남한이었다. 마침 김대중 정부 또한 ‘햇볕정책’을 내걸지 않았던가.

한국도 외환위기에서 조기 탈출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안정이 필수였다. 달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온 것은 우리 정부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중앙포토]

리가 들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외 투자유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바라 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민간 쪽에서도 교류 협력 분위기가 익어갔다. 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 창업 회장이 소떼를 끌고 북으로 갔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렸다.

정상회담 준비는 착착 진행됐다. 물론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야 한다고 북측이 주장하는 등(추후 철 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마침내 4월 8일 합의가 이뤄졌다.

국내에선 ‘퍼주기만 한다’ 비판 여론도

6·15 공동선언 후 남북은 수많은 고위급·실무 회담을 열고, 교류 협력에 속도를 냈다. 남북의 접촉면이 늘어나며 북한 내부도 변화가 시작됐다. 정보 기술(IT) 산업을 바탕으로 단번에 경제 도약을 이뤄보겠다는 ‘신사고론’이 2001년 등장했고, 이듬해에는 이른바 ‘장마당’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 일부를 수용한 ‘경제 관리 개선 조치’(7·1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남한을 적대시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 들을 도와주는 우리 민족’이라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 확산하기도 했다.

6·15 공동선언 직후 우리 쪽에서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안보에 득이 된 게 있느냐”는 것이었다. 여론을 의식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8월 말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 장관급 회

담을 앞두고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을 불렀다.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의 속도를 맞추도록 북한을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평양에 간 박 장관은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형식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거부한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버텼다. 그러 기를 이틀, 박 장관은 북한이 특별히 마련한 야간열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가 다음 날 새벽 자강도 강계에서 김정일을 만났다. 그러곤 남북 국방장관회담, 군사합의선 설치, 개성공단 사업 등 10여 가지 합의를 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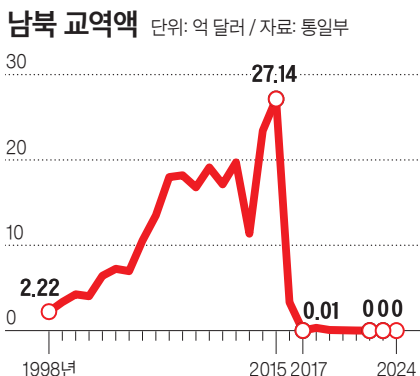
남북 첫 정상회담으로 통일에 한발 다가서는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남북 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합의 한 회담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넘게 미뤄지는 냉각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2002년 제2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추후 북한은 통일부에 “우발적으로 발

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 전문을 보내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요동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며 한반도는 한 때 격랑에 빠졌다. 그리고선 이듬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이명박 정부 때는 대립 일변도였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격되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멈춰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했다. 이듬해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회담 의의를 내비쳤다. 하지만 2016년 초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여겨졌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사망선고를 받고 말았다.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온기가 흘렀다. 그해에만 세 차례 정상 회담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급전직하했다.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2020년 북한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한때 연간 10억



달러를 넘던 남북 교역과 10만 명 이상 이었던 남북 왕래는 윤석열 정부 들어 ‘0’이 됐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관계”라 규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국도를 끊었다.

김정은-트럼프 회담 올해 안에 열릴까

작금의 한반도는 전쟁도 없지만 평화도 없는 상태다. 주변 열강인 미국과 중국 간에는 갈등과 경쟁이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은 두 정상 간의 친분을 인정하 면서도 ‘핵 보유를 받아들이는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한다. 동시에 김정은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중·러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오는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내년 1월 제9차 당대회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어느 정도 과시할 것인가, 또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조정 신호가 나올 것인가 등이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만남 요청에 김 위원장이 호응하느냐도 관심거리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 과거를 보면 남북은 대화 속에서 북한의 핵전력 완화 같은 해법을 찾았고, 대결 속에서는 해악이 찾아왔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불과 몇 년이긴 했지만 우리는 6·15가 가져다준 평화의 힘을 누렸다. 이제껏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6·15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도 협력적 상생이 서로 윈윈하는 밑바탕이라는 점을 꼭 상기했으면 한다.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아니라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다. 대화채널 복원을 통해 남북한의 손뼉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QR Code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562-896-3400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시 설

반미연대 나란히 선 북·중·러 정상…한국 외교 시험대에

북·중·러의 세 정상이 어제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다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선 것은 처음이다. 1959년 신중국 10주년 행사에서 김일 성·마오쩌둥·흐루쇼프가 함께 천안문 위에 올랐던 이 후 66년 만의 장면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강권에 굴하지 않 았으며 폭력에 굴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 에는 스텔스 전투기, 신형 핵미사일, 극초음속 대함미 사일,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됐 다. 시 주석은 김 위 원장과 푸틴 대통 령을 좌우에 배치해 북·중·러 밀착을 연출했다. 딸과 측근들을 대거 대동한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 복원을 노렸고, 푸틴 대통령과 150분 동안 진행한 회담에선 “형제적 의무로 돕겠다”고 말해 러시아 지원 의사도 드러냈다.

국제사회는 이번 행사를 ‘신냉전’의 신호로 해석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자신의 소셜미디 어에 “반미 음모”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외신 들은 중국이 서방에 대해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고 평 가했다. 신냉전의 본격화는 한반도 안보에 불안을 던 진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국제 제재망의 균열을 통해 핵

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우리에겐 상당한 안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 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 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 역국이고, 러시아 역시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양자택일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 장에선 반쪽 외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안보 문제에선 한·미·일 공조를 단단히 다져야 하지만, 경제나 비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 채널 을 유지하는 투트 락 전략이 필요하 다. 북한에 대해서

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최소한의 대화 가능성 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까 지 닫아버리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여지가 사라진 다. 동시에 인도·유럽·호주 등과의 협력으로 다자 외교 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검토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 할 수 있다.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에서 경제 협력의 다변화와 외교 공간 확대는 필수적 과제다. 안보뿐 아니라 외교 전반에서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 교가 시험대에 들어섰다.

신냉전 구도 심화, 한반도 안보에 부담
한국 외교 공간 넓히는 지혜 발휘할 때

정부 창고엔 쌀 넘쳐나는데 시중 쌀값은 급등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판매되는 20kg 한 포대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2%, 평년보다는 14% 높은 수 준이다. 일부 지역 마트에선 한 포대가 7만~8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2% 시대에 어울리지 않 는 상승세다. 쌀값은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1년 전보다 11% 올라 1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자칫 식당 밥값도 자극할 수 있는 오름세다.

문제는 쌀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창고 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합쳐 111만t 넘는 쌀이 쌓여 있 다. 결국 가격 불안의 배경에는 정부의 수급 관리 허점 이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약 366만t으로 예상 소비량보 다 12만t 이상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36만t을 공공 비 축으로 매입하고, 26만2000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했다.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 는 조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급 관리를 그르쳐 지난해 수 확한 햅쌀 재고가 소진되자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 창 고에는 쌀이 넘쳐나는데, 정작 시중에서는 품귀에 시 달리며 가격이 치솟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쌀값 급등에 산지 유통업체들의 벼 확보 경쟁은 뜨 거워졌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로 지난해 벼 확보 가 부족했던 업체들이 일제히 벼 매입에 나선 것이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4월 말 71만t으로 전년대보다 21만t이나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벼가 잘 머물지 않아 3년째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보유 양곡 3만t을 방출하 고, 마트 할인 폭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햅쌀 출하 전 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쌀이 남아돈다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이번 가격 불 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지난 해 수확량 급감으로 올해 들어 쌀값이 폭등했다.

지난 3월에는 1년 전보다 99.5%까지 치솟기도 했다. 마트에서는 ‘1가구 1포대’ 구매 제한이 걸렸고, 한국 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캐리어에 한국 쌀을 가득 싣 고 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한국에는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그간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해 쌀을 매수해 주는 양 곡관리법도 마련됐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수 급 관리는 구멍이 뚫렸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의 부작용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농가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시장격리 같은 단선적 대 책뿐 아니라 정밀한 수급 예측과 탄력적 대응이 필요 하다. 국민 1인당 하루에 밥 두 공기도 안 먹는 시대라 지만 쌀은 여전히 주식이다. 몇 안 되는 자급 식량이기 도 하다. 정부는 쌀 수급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극우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말라

김정하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극 우 타령’이 들려온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극우 세력에 장악되기 직전이며, 역사 의 반동인 극우를 철저히 섬멸하지 않으 면 한국이 머잖아 파멸할 거란 호들갑이 다. 올 초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드러 난 사회 일각의 극우적 행태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주류가 됐다는 건 턱없는 과장이 다. 좌파의 ‘극우 타령’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주장을 주의 깊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서울 거주 경제 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 는 기사 제목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에 앞서 조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해 2030세대가 강 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2030 남성이 70 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재기의 명 분을 극우에서 찾으려는 것 같은데, 자 신의 입시 비리와 극우가 도대체 무슨 상 관이란 말인가.

조 전 의원이 인용한 기사는 ‘시사인’ 에 실린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의 연 구 결과다. 김 교수는 극우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 사용, 규칙 위반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보 다 개인이 자신의 생계(복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이민자 유입이나 난민 수용 확대 중 하나라도 반대. ④ 대 북제재를 중심으로 압박 정책을 우선시. 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타격을 받더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다섯 가지 모두 찬 성하면 강성 극우고 ①만 빼고 ②~④에 동의하면 연성 극우란다. 하지만 대북제 재와 한·미 동맹 강화가 극우 지표로 활 용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또 ①이야말로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서 맨날 보는 건데 그럼 민주노총도 극 우 집단인가? 백보 양보해 김 교수의 기 준을 인정하더라도 20대 남성과 30대 남 성에서 극우 비율은 각각 15.7%와 16%

에 불과했다. 2030 남성의 주류로 보긴 어렵다.

또 한국갤럽의 지난 3월 통합 여론조 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을 묻는 질문에 18~29세 남성의 52%는 찬성, 36%가 반대였다. 30대 남성은 찬 성 53%, 반대 36%였다. 2030 남성의 절 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오히려 60대 이상보다 탄핵 찬성률이 높다. 만 약 ‘윤석열 비호’를 근거로 2030 남성에 게 극우 딱지를 붙이겠다고 하면 그에 앞서 60 대 이상의 세대를 전부 극우로 몰아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진영 에서도 혁명자금을 만들겠다고 재벌 집 에 침입해 경비원을 과도로 찌른 사람도 있었고, 미 대사관저에 난입해 사제폭탄 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으며, 무고한 민간 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몰아 물고문을 가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민주화운동 전체를 극좌로 매도하는 건 물상식한 평가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30 남성 일부가 극우 성

2030 남성 극우화? 침소봉대 불과
조국 비리 반감이 극우와 무슨 상관
정치가권이 손 내밀고 고민 청취해야

향을 띤다고 해서 2030 남성의 담론 전체 를 극우로 치부하는 건 터무니없다. 조 전 의원은 그제도 “국민의힘이라는 극 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 청년 일부 가 극우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진단은 여 전히 엉터리다.

2030 남성이 보수화된 건 분명하나 그 건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국민의힘은 그럴 능력도 없다) 극심한 취업난, 아파 트값 폭등,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군 복 무 피해의식,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등 이 복합적으로 얹힌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을 극우로 몰아 봐야 세대 간 갈등만 증폭될 뿐 아무것 도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 이라면 미래의 주역인 이들에게 손을 내 밀고 고민과 애로를 청취하는 게 먼저 다. 자녀 입시 비리에 분노하는 게 극우 라면 도대체 극우는 얼마나 흔한 답안에 불과한 것인가.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계약처: 세이브이씨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 뉴스, 日本経済新聞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ellow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SEP. 4TH - SEP. 11TH, 2025

samlip

Cream Bun
삼립 우유
크림빵
FRESH MILK
3.52 OZ X 6 EA/PKG
LIMIT 2



\$8.99

O'Food
청정원

Gochujang
& Ssamjang Bundle
청정원 고추장 + 쌈장
LIMIT 2

\$13.99



GOCHUJANG
& SSAMJANG
6.6 LB + 1.1 LB/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에촌 앞 빌딩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연방과선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집값 서부 약세, 동부 상승 ... 지역 격차 뚜렷

LA 0.1% 미미한 상승세 전환
66% 급등세 SD -0.6% 하락
자산 증식서 안정 성장 전환

서부와 남부와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시장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온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6월 서부와 남부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동북부와 중서부는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격차가 뚜렷해졌다. 6월 수치는 봄철 매매 계약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2023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리얼터닷컴의 앤서니 스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증가와 지역별 불균등한 수요, 주택 구매 매력 악화가 전국적인 성장세를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인센티브와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서 기존 주택 가치에 압력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시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서부 지역은 최근 들어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2%와 -0.6% 하락을 기록했고 피닉스(-0.1%)와 덴버(-0.6%)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LA는 0.1% 올라 상승 전환에 의미를 뒀다.

특히 샌디에이고의 하락은 가장 극적인 시장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택 가격이 66% 급등했으며, 팬데믹 시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산불의 위험에 노출된 전국의 주택 가운데 약 45%가 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의 주택가를 위협하는 산불.

가격 하락은 집값이 현실적인 소득 수준과 괴리를 보이면서 역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서부 지역이 전반적으로 공급량 증가와 건설사들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기존 주택 가격 하락을 더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애틀(0.9%)과 포틀랜드(1.0%)는 여전히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도시별 편차가 존재한다.

동북부는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뉴욕은 7%로 20개 도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보스턴 4.3%, 워싱턴 DC 2.2%로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동북부는 토지 제약으로 인해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고 금융IT교육 등 고소득 전문직 기반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단기 조정보다는 중장기적 안정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6월 기준 도시별 집값 연간 변화

도시	연간 변화	특징 및 동향
탬파	-2.4%	8개월째 하락. 20대 도시 최대 하락
샌프란시스코	-2.0%	고가 주택 시장 약세 지속
댈러스	-1.0%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압력 확대
샌디에이고	-0.6%	팬데믹 이후 66% 급등 뒤 조정 국면
덴버	-0.6%	수요 둔화로 약세 전환
마이애미	-0.3%	팬데믹 급등세 뒤 조정 진입
피닉스	-0.1%	서부의 전반적인 약세 반영
LA	0.1%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 전환
시애틀	0.9%	서부 도시 중 상대적으로 안정
애틀랜타	0.9%	남부의 수요 지지세 반영
라스베이거스	2.4%	경기 회복과 신규 수요 반영
뉴욕	7.0%	수요 강세. 조사 도시 중 최고 상승률

자료: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지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벚꽃, 마루바닥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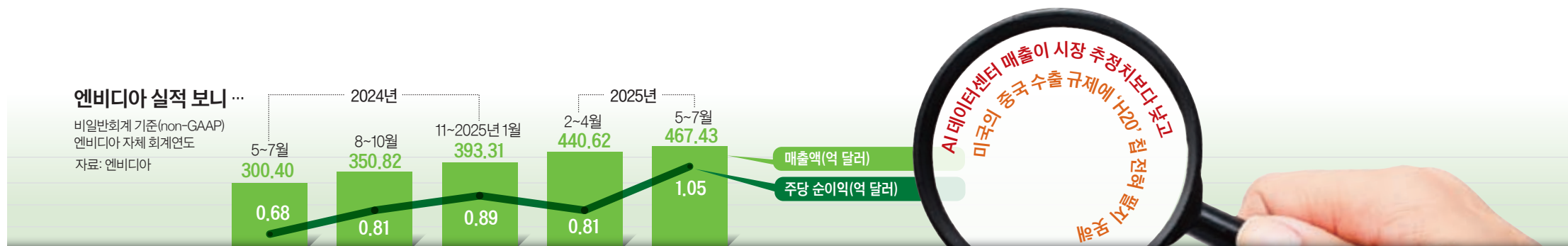
DC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깜짝 실적에도 주가 빠졌다... 'D·C' 압박 받는 엔비디아

〈Data center·China 약재〉



2분기 실적 속 숨겨진 위험

데이터센터 정체, 중국 수출 제한
“AI투자 지속가능한가” 거품론 확산
K반도체, 미국 투자압박 상황 속
‘HBM 수요 줄어드나’ 예의주시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5~7월)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뛰었는데도, 주가는 하락했다. AI 거품이 꺼질 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팀 엔비디아’로 AI 붐에

올라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매출 전망치(460억600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전망치(1.01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매출은 56%, 순이익은 59% 증가했다.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건 지난 4월 출시한 신형 AI 가속기 ‘블랙웰’이다.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블랙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7% 늘어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뒤따랐다. 실적 발표 직후 나스닥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급락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월가 추정치(414억4000만 달러)보다 낮은 411억 달러(57조원)에 그쳤고, 마·중 갈등 여파로 중국에 저사양 AI 칩 'H20'을 전혀 팔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대중 수출이 금지됐던 H20은 지난 달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판매 재개 승인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전망치를 540억 달러(75조원)로 잡고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3분기 실적 전망에서 H20 판매를 아예 제외했다. 크레스 CFO는 "지정학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면 3분기에 20억~50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될 것"이

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전망치로 600억 달러(82조원) 이상을 예상했다”며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실망감을 전했다.

AI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샘 올먼 오픈AI CEO의 발언("AI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을 시작으로 AI 거품론이 재점화된 데다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HBM 수요 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추가 투자 압박도 부담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지분을 맞추기 싫으면 대미 투자를 늘리라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엔 출시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는 HBM4로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마이크론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HBM 시장 2위(2분기 21%)인 마이크론은 1위인 SK하이닉스(62%)의 뒤를 바짝 쫓아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수컷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는 ‘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내년 HBM 공급량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해당 물량은 HBM3E 12단이 대부분이지만 HBM4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을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우림 기자

좁아졌는데 집값은 꺾춤... 주택도 슈링크플레이션

신축 단독주택 면적 11% 감소
스퀘어피트당 가격 74% 폭등

지속된 고물가에 새로 짓는 단독주택의 가격은 비싸지고 크기는 줄어 주택 시장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는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리는 현상으로 최근 일부 식료품, 소비재 등에서 확산된 바 있다.

금융 정보업체 렌딧트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11% 감소했지만,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74% 폭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부 지역 신축 단독주택의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223.89달러로 2014년의 109.49달러 대비 104.5% 급등했다.

주택 크기는 지난해 평균 2338스퀘



어피트로 10년 전의 2608스퀘어피트보다 10% 감소했다.크기가 감소하고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르면서 향후 첫 주택 구매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구매자가 예산과 생활 패턴에 맞춰 주택을 구매해도 몇 년 후에는 주택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녀가 생겨 생활 공간은 좁아지지만, 주택 가격 상승 둔화와 높은 거래비용, 금리 부담으로 인해 더 큰 집으로 이사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 중에서

도 가격 인상 폭이 큰 서부 지역은 더 넓은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집을 구매한 뒤 5년 정도 버티면 거래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8~10년을 기다려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이런 압박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레드핀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첫 집을 살 때 이들 5명 중 1명이 가족의 도움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절반 이상, 3개월 비상금 없다

수입 중단 시 재정 취약
성인 46%만 생활 유지
4명 중 1명은 대책 전무

가계의 재정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정보업체 백크레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수입이 중단돼도 3개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금을 보유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위기 대응 여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는 비상금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30%는 일부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3개월 치 생활비에는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3~6개월 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가구는 소수에 그쳤다. 응답자의 60%는 현재 비상금 수준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1%는 '매우 불안하다', 29%는 '다소 불안하다'고 응

답했다. 반면 ‘매우 만족’(13%)과 ‘다소 만족’(27%)을 합쳐 40%만이 현재 수준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52%, 61~79세)가 자신의 비상 저축 수준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Z세대(29%, 18~28세), X세대(31%, 45~60세), 밀레니얼 세대(40%, 29~44세)보다 높아 격차가 뚜렷했다.

향후 필요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85%는 최소 3개월 치 비상금을, 63%는 6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수준을 보유한 비율은 각각 46%, 27%에 그쳤다.

비상금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만족 비율은 76%로 더 높았다. 반대로 비상금이 전혀 없는 가구의 90%, 3개월 치 미만만 보유한 가구의 82%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은영 기자

이은영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가격	특징		설명
주택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970,000	SALE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에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크홀 4/20 마켓에 올리유 예정
	8350 Greensboro Dr, McLean, VA	\$445,000	UNDER CONTRACT	NEW	바이어가 꼭 원하는 조건의 집 8/18 세들먼트 완료
	8512 Pine Sparrow Ln, Severn, MD	\$650,000	UNDER CONTRACT		2.75% 군인 용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들먼트 완료
	6110-A Hoskins Hollow Rd, Centreville, VA	\$480,000	SALE	NEW	손님이 꼭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경쟁해서 이김.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8/8 세들먼트 완료
	1631 Cecile St, McLean, VA	\$1,420,000	SALE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들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즈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들먼트 완료
	1930 Battery Park Dr, Vienna, VA	\$1,315,000	SALE		여러 오피 경쟁 돌림. 팀가는 오피 자신 있음. 5/20 세들먼트 완료

	주소	기간	세입자	설명
사업체 매매	델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으티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주채원, 공평에서 바로 입주	올 여름/가을에 파진 날을 주채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주채원, 공평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주채원, 공평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별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주채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3년	주채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사랑하는 교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2,200 2층 4인용룸, 방 3, 히/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연방 공무원 직장 내 선교 허용

인사처 종교 표현 확대 지침
교회에 함께 가자 권유 가능
종교 물품 비치와 기도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인사관리처는 이번 지침이 시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간에 종교에 대해 대화하거나 성경이나 십자가, 메주자 등 종교 물품을 책상에 비치하는 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처는 지침에서 “휴식 시간 중,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이유와 비신자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를 공손히 설명할 수 있다. 단, 상대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부활절 예배 초대장 게시판 부착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는 권유 ▶종교 관련 포스터 부착 ▶환자를 위한 재향군인부 소속 의사의 기도 ▶국립공원관리청(NPS) 소속 레인저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도 등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부처가 직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처는 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를 줄인 친절한 성경 출간이 활발하다.

수 있고 종교와 비종교 성격의 모든 포스터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종교적 권유 활동이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연방 공무원은 종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대가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멈춰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노동부도 몇 년간 유사한 지침을 웹사이트에 명시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연방 공무원은 결코 신앙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며 “이번 지침은 연방 공무원이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공직 내 종교 자유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초 인사관리처

는 연방기관에 대해 “공무원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나 근무 일정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안식일인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우체국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초,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를 반기독교적으로 무기화했다고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특별 조사 데스크 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종교적 편향 사례를 보고하라고 장려했다.

이 지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무종교자유재단(FFRF)은 이번 지침이 충격적이고 위험적이라고 반발했다. 애니 로리 게일러 FFRF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더 큰 문제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전도하거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종교를 강요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중세교회 잔인함 죄의식서 출발’ 비판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러셀, 아우구스티누스를
철학자로서 높게 평가
데카르트 실존론에 영감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도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는 운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그는 아담의 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육체가 영적인 특징을 지닐 수도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이 육체 속에 갇혀버렸다고 한다. 다분히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그는 아담의 죄 탓에 우리는 벌 일부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성육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혼생활에서 성교는 자손을 낳으려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아무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도 성교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육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프로이트 사상과 맥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성욕 때문에 인간은 갈등하고 심해지면 신경증에 걸린다고 했다. 프로이트가 ‘신국’을 읽은 지는 모르겠으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분석은 정확했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증명하고 있다.

러셀에 따르면, ‘신국’에서 독창성이 돋보이는 중요한 사상은 들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종말론은 유대교에 원래 있던 사상이고, 예정조화설과 선민사상은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오로의 편지에 나타난 사상을 논리적으로 다듬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마르크스는 야훼를 변증법적 무물론으로, 메시아를 마르크스로, 선민을 노동자 계급으로, 교회를 공산당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혁명으로, 지옥을 자본가 계급의 처벌로, 천년왕국을 공산

사회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아무도 자기 힘만으로 죄를 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인간은 유덕한 존재가 된다고 했다. 그는 원죄 때문에 모두 영원한 천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므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과 유아도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사악한 존재인 탓에 이러한 천벌을 두고 불평할 수도 없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언급했다. 가령,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몇몇은 신의 은총으로 선택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 이들이 바로 ‘신국’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러셀은 중세 교회가 저지른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적의 원인은 대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음울한 보편적 죄의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암흑기 이전에 지성계를 대표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문명을 구하거나 야만족을 몰아내거나 행정권의 남용을 개혁하는 일은 제쳐두고, 당시의 고트족에 의하여 처녀성의 가치를 상실한 처녀에 대한 평가와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에게도 지옥행이라는 천벌을 설교하는 당시의 기독교는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러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자로서의 식견을 높게 평가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라는 주장도 미리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독백’에서 이렇게 말한다. “알고 싶어하는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모른다. 너는 너 자신을 단 하나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여럿이라고 느끼는가? 나는 모른다. 너는 네가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연히 알고 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는 실존론적 사상을 얻었을 것으로 러셀은 추측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생디의 ‘나는 길을 수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출처의 해답도 들어 있다고 추측한다.

바티칸 첫 탄소중립 국가 시동

1000에이커 태양광 발전단지
이탈리아와 개발 계획에 합의

바티칸이 전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국가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31일 로마 북쪽에 위치한 100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태양광 발전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부지는 과거 바티칸 라디오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티칸은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해 이탈리아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반면 이탈리아 국민에 적용되는 태양광 관련 재정 인센티브는 받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이 부지를 유럽연합(EU)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바티칸 수요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역사회에 제공된다.

바티칸은 해당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유로(약 1억 1400만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이 부지를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화석연료 탈피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6월 현장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제니스 박
콜드웰뱅크 베스트부동산

가장 인기 있는 시장

1위 MA, 스프링필드, 2위 WI, 오시코시-니나

높은 인기 불구, 거주 진입 장벽 높아 하위권

2025년 8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외의 활력을 보였다.

거래량은 둔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은 매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핫 마켓’으로 불릴 만한 열기를 이어갔다. 북동부와 중서부의 중소도시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이동, 고용 구조, 생활비 차이 등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동산 정보업체 Realtor.com이 발표한 ‘Market Hotness Repor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가 8월에도 1위를 차지하며 세 달 연속 최정상에 올랐다. 스프링필드는 보스턴과 인접해 있어 직조근접성이 뛰어나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중간 주택 가격은 약 36만 달러 수준으로, 보스턴보다 저렴하다. 시장에 나온 매물이 평균 29일 만에 계약될 정도로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

2위는 위스콘신주의 오시코시-니나가 차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한 이 도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중간 가격 약 34만 달러라는 접근성을 무기로 젊은 세대와 첫 주택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3위는 코네티컷 주의 하트포드로, 보험·금융 산업 중심지답게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간 가격은 약 44만 달러이며, 거래 기간은 34일로 전국 평균보다 짧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다.

올해 순위가 무려 59계단이나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 교통망 확충, 생활비 부담이 낮은 점이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이주를 자극했다. 중간 가격은 약 31만 달러로, 동·서부 대도시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캔자스시티가 중서부를 대표하는 신흥 부동산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 외, 오하이오주의 톨레도, 미시간주의 랜싱, 뉴햄프셔주의 맨체스터-내슈아 등이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공통적으로 가격은 합리적이고 지역 경제가 안정적이며, 평균 거래 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보였다. 시장의 매물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조희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단계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온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와 같은 서부·대도시권은 이번 순위에서 밀려났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고, 세금과 규제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진입 장벽은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결국 ‘핫 어스’ 순위에서는 뒤처지게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은 원격 근무 문화가 여전히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장이 대도시에 있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며, 생활비가 저렴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Deed’의 종류와 의미

소유권 이전 이상의 법적 의미 가져

추후 소유권 분쟁에서 권리도 보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핵심 서류가 바로 ‘디드(Deed)’입니다.

한국식으로는 ‘등기 이전서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서 그 이상의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Deed의 종류에 따라 매수인이 향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권리 침해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워런티 디드(Warranty Deed)입니다. 이 Deed는 매도인이 “본인이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소유권에 문제가 없었고, 만약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받는 형태이며, 숨겨진 지당권이나 권리 침해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적인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됩니다.

그랜트 디드(Grant Deed)는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타이틀에 하자가 없었음을 보장합니다. 다만, 워런티 디드와는 달리 과거 소유자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 범위가 좁습니다.

바겐 앤 세일 디드(Bargain and Sale Deed)는 법원 명령이나 경매 처분과 같은 비자발적 거래에 자주 사용되며,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라는 사실만 확인할 뿐, 그 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제한적인 형태는 퀴클레임 디드(Quitclaim Deed)입니다. “만약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넘기겠다”는 의미이며, 소유권이 실제로 있는 지조차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족 간 소유권 이전, 이혼 재산 분할, 신탁 재조정 등의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Deed 중에서 워런티 디드와 같이 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에는 보통 다음의 여섯 가지 법적 약속이 포함됩니다.

1. 소유권 약속: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보장
2. 이전 권리: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자격이 있음을 보장
3. 무부담 약속: 숨겨진 담보나 권리가 없음을 약속
4. 평온한 소유 보장: 제3자의 방해 없이 소유권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
5. 추가 이행 보장: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6. 영구 보증: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 보상할 것을 약속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전환은 영국에 매우 불리했다. 영국군은 5월 말 뉘케르크에서 기적적으로 철수했지만,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했다. 런던은 연일 독일 공군의 공습에 시달렸다.

9월에는 독일·이탈리아·일본이 삼국동맹 조약을 맺고 공세를 강화했다. 서유럽 대부분이 독일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영국이 의지할 곳은 대서양 건너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참전을 주저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참전했다가 10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전쟁의 상처에 지친 미국인은 당시 참전을 결정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주당에 반감이 컸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공황(1929~1939)이 오

기까지 민주당은 대선에서 내리 3연패 해 백악관은 계속 공화당 차지였다. 1932년 집권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국민의 고립주의 성향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는 비상한 결단으로 고립주의의 벽을 넘었다. 대영제국이 보유한 최첨단 군사기술을 미국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국 과학자 헨리 티저드가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고성능 레이더, 제트엔진, 원자력 연구 자료, 암호 정보를 통째로

넘겼다. 일명 ‘티저드 미션’이다.

영국의 진심 어린 제안에 미국이 움직였다. 1941년 3월, 미 의회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 동맹국에 무기와 물자 공급의 길을 열었다. 막강한 산업



력을 보유한 미국은 영국이 제공한 기술을 적용해 폭격기 성능을 개선하고 제트엔진을 개발했다.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티저드 미션을 계기로 영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을 다졌다. 영국의 기술과 미국의 생산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보를 택한 처칠의 결단력과 루스벨트의 호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미국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140

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하지만 압도적 조선 능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영광도 서서히 저물었다. 이제 함선 건조는 커녕 유지·보수도 쉽지 않다. 현재를 전시 상태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선의 노후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우리 정부의 한·미 선박산업 글로벌 얼라이언스 ‘마스가(MASGA)’를 통한 원원 제안은 신의 한 수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미국은 안보·경제 울타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반관계의 구축에 나섰다. 한·미 협력이 21세기판 티저드 미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퍼먼대 경영학 교수·『관세 이야기』 저자

REALTY11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터넷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UNDER CONTRACT Rockville MD 싱글홈 \$759,000 방4, 화3	Bethesda MD 싱글홈 \$1,295,000 방4, 화2/1	Gwynn Oak MD 싱글홈 \$419,000 방4, 화3
COMING SOON Elkridge MD 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	UNDER CONTRACT in 3 days Nottingham MD 싱글홈 \$449,000 방3, 화2	COMING SOON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IN 3 DAY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매출이
달라집니다!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손’ 보다 빠른 발… 그에게 ‘진공청소기’ 맡겨라

〈손흥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엔스 카스트로프(22·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는 7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열릴 미국의 평가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장대일·강수일 등 국내에서 나고 자란 혼혈 대표선수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나고 자란 경우는 그가 처음이다.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의 포지션이 현 대표팀에서 가장 취약한 6번 자리(수비형 미드필더)이고, 한국에선 보기 드문 플레이 스타일의 선수라서다.

카스트로프는 중앙 미드필더지만, 팀 전술에 따라 윙백으로도 뛸 수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확보한 그의 소속팀 측정 자료에 따르면, 그의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35.4km다. 스포트 경기로 이름난 손흥민(LAFC·35.13km)보다도 빠르다.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갔다가 재빨리 수비로 내려야 하는 윙백에게는 빠른 발이 필수적이다. 그의 국내 대리인 마쿠스 한 미노스포츠 대표는 “빠른 공수 전환을 가르치는 독일에서 축구 조기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카스트로프는 매우 전투적인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진공청소기’ 김남일, ‘싸움닭’ 켄나로 가투소(이탈리아) 같은 유형이다. 마쿠스 한 대표는 “카스트로프가 2018년 독일 쾰른 17세 이하팀 당시 10번 자리(공격형 미드필더)의 플로리안 비르츠(리버풀) 뒤에서 보디가드처럼 뛰었다”며 “전투적으로 치고받는 파이터”라고 소개했다.

다만 거친 플레이 탓에 옐로카드를

첫 혼혈국대, 미드필더 카스트로프 순간 스피드 35.4km, 손흥민은 35.1km 빠른발 필요한 윙백까지 역할 가능 두 시즌 옐로카드 23장, 파이터 선수 “도련님 수비” 비판 국대에 꼭 필요



카스트로프가 2일 뉴욕주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대표팀 훈련을 소화했다. 작은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에서 만난 대리인 마쿠스 한과 카스트로프, 홍명보 감독. [사진 마쿠스 한, 연합뉴스]

많이 받는 이른바 ‘카드캡터’다. 뉘른베르크(독일)에서 뛴 두 시즌(2023~2025년) 간 23장의 옐로카드를 받았다.

한국의 지난 월드컵 지역예선 실점 장면을 보면 상대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로 인해 “도련님 수비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과거 김남일처럼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가 필요한데,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카스트로프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이나 출장정지 등은 팀에 큰 피해를 준다. 다행히 카스트로프는 23장의 옐로카드를 받은 두 시즌 동안 퇴장은 딱 2번이었다. 영리하게 ‘선’을 지킨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6월부터 대표팀에서 스리백(3-4-2-1포메이션)을 실험 중이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강팀을 만나게 돼 수비를 더 두껍게 하려는 구상이다. 이 포메이션에서는 3명의 중앙수비수 앞을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하고 양쪽에 윙백이 선다.

카스트로프는 포메이션의 3선(숫자 ‘4’에 해당하는 라인) 네 자리 중 왼쪽 윙백을 뛸 세 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카스트로프는 공격 성향이 강한 백승호(버밍엄), 김진규(전북)를 뒤에서 받쳐거나, 수비적인 박진섭(전북), 박용우(알아인) 옆에서 공격적으로 뛸 전망이다.

한편, 대표팀은 3일 뉴욕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한국말로 진행됐다. 의사소통 우려에 대해 카스트로프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 한국말 단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어가 유창한 데다 독일에서 뛰었던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과는 소통에 문제가 없다. 손흥민 팬으로 알려진 그는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특정 선수와 대화하기보다 팀의 일원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린 기자

이적한 김하성, 원정간 이정후 나란히 멀티히트

김, 애틀랜타로 이적 첫 경기 활약 유격수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이정후도 한달만에 3출루 기록

메이저리그(MLB)의 한국인 야수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나란히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전날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깜짝 이적한 김하성은 3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MLB 원정경기에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14에서 0.227로 올라갔다.

애틀랜타 데뷔전이었던 이날 경기에서 김하성은 2회에는 투수 땅볼, 4회에

는 유격수 땅볼로 각각 물러났다. 이후 두 타석을 안타로 장식했다. 팀이 3-4로 뒤진 7회 1사에서 상대 왼손볼펜드 루 포머랜즈의 5구째 커브를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9회 2사 2루에서 맞이한 마지막 타석도 내야 안타로 마무리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안타로 2사 1, 3루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3-4, 한 점 차 패배를 당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하성은 2년간 총액 2900만 달러(약 404억원)에 샌디에

이고 파드리스를 떠나 탬파베이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빅리그 로스터에 합류한 이후 오른쪽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지며 부진했다.

결국 탬파베이는 지난 2일 웨이버(방출) 처리했고, 김하성의 수비 역량을 높이 산 애틀랜타가 기존 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영입했다. 애틀랜타는 올 시즌 내야가 붕괴하며 가을 야구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 송지훈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플서비스

3.맡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way off; 완전히 틀리다

(Brittany is talking to her mother Penny ~)

(브리트니가 엄마 페니와 이야기를 나눈다~)

Brittany: Mom do you know how The White House got its name?

브리트니: 엄마 백악관이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세요?

Penny: A man named White painted it?

페니: 화이트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페인트를 칠 해서 그런가?

Brittany: How did you come up with that answer?

브리트니: 어떻게 그런 대답을 생각했어요?

Penny: I guessed.

페니: 그냥 추측한 거야.

Brittany: You're way off, Guess again.

브리트니: 완전히 틀렸어요. 다시 맞춰보세요.

Penny: I don't have a clue.

페니: 정말 모르겠다.

Brittany: You're not trying very hard.

브리트니: 생각도 잘 안 해보고는.

Penny: Give me a break. Tell me the answer.

페니: 그만하면 됐다. 정답이 뭔지 말해봐.

Brittany: The British burned it, When it was rebuilt it was painted white.

브리트니: 영국군이 불을 질렀는데 다시 지으면 서 하얗게 색칠해서 그렇게 불려요.

Penny: Thank you for the history lesson.

페니: 역사 수업 잘 받았구나.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up with (something): (무엇이) 생각나다 떠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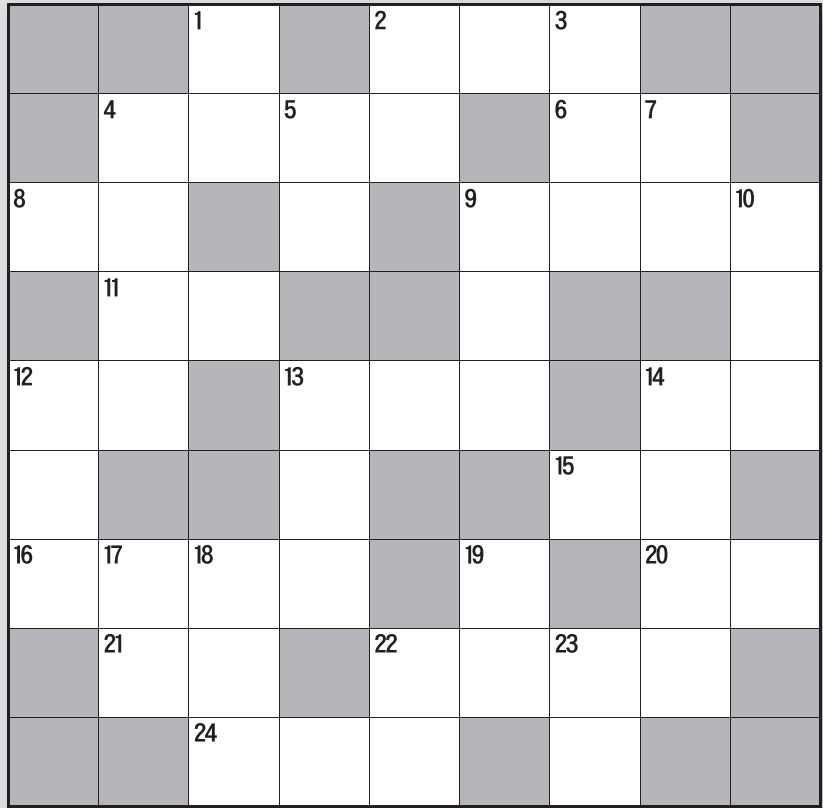
"Julie came up with a great idea for her project," (줄리가 프로젝트를 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어요.)

▶ not have a clue: 전혀 모르다.

"He doesn't have a clue about how to fix his car." (그사람은 차 고치는 건 전혀 몰라요.)

▶ give (one) a break: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날말퀴즈



가로열쇠

(2)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을 적은 서류 (4)터무니없이 거짓되어 실속이 없을 때 ~하다고 하죠 (6)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별짜 기차가 떠났다니, 이것 참 ~로군 (8)마음을 다 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은 금물 (9)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뜻자리나 집터 (11)몹시 감탄하는 소리. 산꼭대기에 오른 순간 멋진 풍광에 나도 모르게 ~이 나왔다 (12)미나리, 파 따위를 데쳐 물들 감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음식 (13)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따위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 경찰들이 용의자의 ~에 잠복하고 있다 (14)지각이 흔들리는 일 (15)수지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 장부에 기록할 때 붉은 글자로 기입한 데서 유래한다 (16)야구에서, 투수를 대신하여 공격을 전담하는 선수 (20)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하여 오는 심신 단련법 (21)무게 5~6kg까지 나가는 여름 과일 (22)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함. 부부 사이에 서로 협동하고 화합함 (24)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세로열쇠

(1)업무를 씬 (2)갈아 놓은 쌀의 한 두둑과 한 고랑 (3)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을 모신 집 (4)품은 생각을 타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한. 이 자리는 노사가 ~하게 안건을 토론했다 (5)맹목처럼 아주 싱거운 국. 웅골차지 못하고 싱거운 일이나 사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째 사람이 아주 ~이더군요 (7)경기에 진 사람. 어느 경기에서나 승자와 ~는 있기 마련이다 (9)좋은 물건이 많이 나서 이름이 알려진 장소. 율령도는 오징어의 ~이다 (10)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유리로 칸막이한 호화로운 대형 승용차. 공항의 여객을 실어나르는 버스 (12)어린 개 (13)나이가 어린 사람, ~연장자 (14)지혜로운 사람은 막힘이 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을 좋아함 (17)소질과 솜씨가 뛰어난 사람. 관소리의 ~ (18)맞거나 부딪쳐 생긴 상처 (19)가야금이나 거문고 따위의 악기를 타면서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22)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23)물고기의 배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스도쿠

4	6	9	7		3		1	
1	7			2		3	6	4
	2		4	1	6			
6	5		2	8		1		9
7		1		9			2	
2	9	8				4		7
5	1	7		4				3
			1					
9			3	6			8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8	2	5	9	3	7	4	6
7	4	5	6	2	1	9	8	3
3	6	9	7	4	8	2	1	5
2	5	4	1	3	9	8	6	7
9	7	8	4	6	5	1	3	2
6	3	1	2	8	7	4	5	9
5	2	6	9	1	4	3	7	8
4	9	3	8	7	6	5	2	1
8	1	7	3	5	2	6	9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9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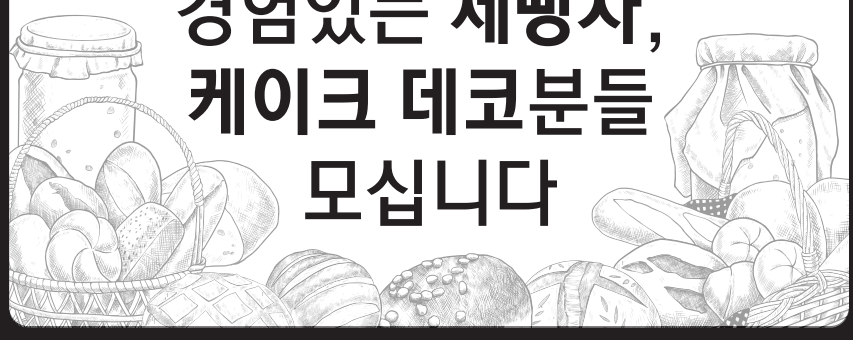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 ~ 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
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
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
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
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폴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콧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
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룸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룸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모,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
한 싱글룸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
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0, 저렴한 렌트
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간호사 모집 RN, LPN (폴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차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소지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
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살본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폴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광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찬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플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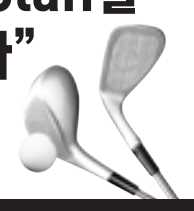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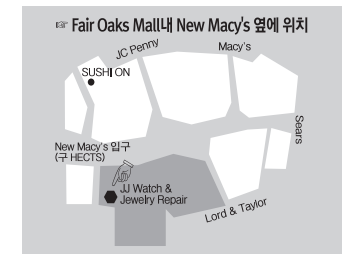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중앙일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클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분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웃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애난데일 앤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넵,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하면 사진 보여드릴
703-395-4380

브리스토 (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앤드 유닛, 방3, 화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맥,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3, 화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3, 화2.5, 맥,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1일 입주
▶571-239-605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2, 화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앤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페어팩스 숏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중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테리어/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 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예찬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여진 집, 벽돌, 마루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
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숏슨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 2, 5000sqft 모던 디자인
2. 첼트리 하이싱글하우스 \$1,050,000
방4, 화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
드, 286/50 Lees corner RD
3.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7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하우스 \$719,000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 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 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 높음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5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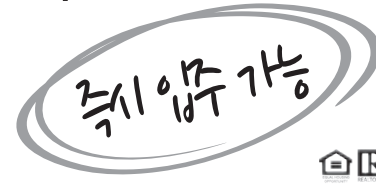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제니 지: 571-277-7758
insunchi@yahoo.com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교, 델레스 공항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역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교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703-231-5572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풀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멜라삭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상버 운영하면서 투자용, 안정된 수입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튼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역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갠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한 신분계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종유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밭고 밑기/시연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 워시,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음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크리닝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탬핑,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벽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 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벽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	---	--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 류 사라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29년 프로세스 경영,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 아브라함 리
(경영학 학사, 석사)

-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Info@meridianwish.com

424-332-3779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권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애틀랜타

매매

구인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비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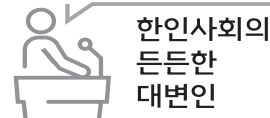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삼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히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박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박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독점 Alexandria 콘도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독점 Reston 콘도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 좋음

\$499,9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 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410,000



독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